

## 어린이철학 범주와 어린이의 존재에 대한 성찰

도덕과교육과 20241303 정재희

2주간의 수업실습을 통해 어린이란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이번 실습에서 직접 만난 1학년 학생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산만하고 정돈되지 못했으며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잦았으며 수업자 의도와는 관련없는 특정 단어에 꽂히는 경향을 보였다. 예로, 수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의 이름에 집착을 하는 식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정형화된 수업이 전혀 학습적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았다. 배워야 하는 개념을 판서해가며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결국 1학년 수업에서 교수자는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닌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인인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자칫 산만해 보인다. 그러나 그 산만함을 억제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정돈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린이 철학 또한 유발하기 힘들 것이다. 어린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다. 해리 원서가 모두 학생의 단순한 궁금증에서 철학으로 이어진 것처럼 수업 현장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의 사소한 궁금증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학습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수업 중 “칠판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랑 제 이름이 같아요.”등의 질문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름과 대상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철학적 고찰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정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에서 존재의 고유성을 떠올리기까지 도움이 되는 발화와 학생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철학적 질문들을 교수자는 고려해야만 한다. 아이들의 산만함은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탐색하며 이해하려는 아이들의 노력이다.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생의 세계는 넓어질 수도, 단절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철학을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